2024년 1월호 (제395호)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

讀書可以 悅親心 독서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독서가이 열친심

勉爾孜孜 惜寸陰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면이자자 석촌음

老矣無能 徒自悔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노의무능 도자회

頭邊歲月 苦駸駸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흐르도다.
두변세월 고침침

遺子滿籯金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
유자만영금

不如敎一經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불여교일경

此言雖淡薄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차언수담박

爲爾告丁寧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위이고정녕

불암산에서 바라본 일출

존경하는 광주이씨 18만 종인 여러분!

찬란한 태양이 희망의 빛을 발하며, 갑진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통 신화와 철학에서 나오는 청룡은, 고요하고 순수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권위와 힘, 행운과 부유, 장수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가 시작되면서, 용의 힘을 받아 18만 광주이씨 일가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문중은, 훌륭하신 선조님들의 후덕으로, 큰 어려움 없이 종사를 운영해 왔으며, 많은 우리 후손들이 각계각층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문중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廣李의 가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선조님들의 유지인 백대지친의 정을 나누고, 화합하는 종회와 종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종회는 선조의 유덕을 받들어, 종친간의 돈목과 선영수호 및 종중재산의 관리보존에 충실을 기하고, 나아가 후손에 대한 충효 사상의 발양, 훈육선도와 인재 양성에 힘씀으로써, 국가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전과 혁신의 발자취로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백대지친을 향한 원대한 꿈과, 그 꿈을 이룰 충분한 역량도 있습니다. 환경과 경쟁, 과거의 틀을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돌파하고, 일류의 큰 꿈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국가 경제의 침체와 사회 여건의 변동은, 종회 운영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대종회는 각 지파의 현안 사항과, 단체 및 종인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하고, 종회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삼성동 수도빌딩을 재건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점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광주이씨의 날 행사가 광주이씨 종인 전체 축제의 장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회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대종회주관 행사에 많은 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시대적 요청과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종인에게 출산 장려금 또는 결혼축하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한글세대의 종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발간 서적 및 제례 관련 용어 등의 한글화 작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알차고 충실한 내용으로 광주이씨 회보의 확대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의 확대 개편 등, 대화와 정보의 마당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일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처럼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명문거족의 자긍심을 대대손손 이어온 700년 역사의 빛나는 전통과, 선조님들께서 물려주신 유업과 유산을 확고히 지켜 나아가고, 미래 세대에게 더 발전된 문중 역사의 기반을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분열은 분열을 낳을 뿐 화합과 돈목, 선조님의 유훈인 백대지친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를 해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18만 종인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헤쳐 나갈 때, 우리 종회는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화합의 구심점이 되고, 올바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광주이씨 대종회가 비약적으로 발전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끝없이 이해하고 인내하며, 문중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주이씨 대종회 회장 이 주 영

대종회 단신

● 2023년 12월 15일(금) 11시 광주이씨 대종회 주영 회장, 십운과공 종회 주성 도유사, 율정공 종회 근수 도유사, 석탄공 종회 만술 도유사, 암탄공 종회 화균 도유사가 대종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상호간 인사와 광주이씨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는 대종회 현 집행부 결성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 아쉽고 서운한 감정을 상호간 이해하고 해소하는 자리였다.

● 2023년 12월 18일(월) 11시 지파 종회장(충희공종회, 관찰사공종회 포함) 자문회의 겸 송년 모임이 있었다. 2023년도를 회고하며 더욱 발전된 2024년도를 맞아, 발전하는 광주이씨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유익한 얘기들을 나누었다.

지파종회 소식

광천부원군파종회

■ 광천부원군파종회 자문회의, 임원회의, 임시 대의원 회의 개최

광천부원군파종회(회장 성호)에서는 2023년 12월 12일 자문회의, 12월 15일 제3차 임원회의, 12월 20일에 임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날씨가 추워서 먼 길 오가기 어려운데도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었으며, 자문위원들께서는 2023년 광천부원군파종회의 사업계획이행과, 2024년도의 종회 발전방향을 제안하였으며, 임원, 대의원들은 각자의 위치에 걸 맞는 견해를 피력하며, 각자가 보는 사회적 흐름과 종회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불안전한 국내 부동산 경기와 종회의 당면한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집행부가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안건을 위임해 주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자리를 회식 장소로 옮겨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 회의장에서 하지 못했던 담소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종회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얘기하면서, 화합하고 돈목하는 종회를 이끌고 나아가자는 좋은 말씀을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저물어 가는 계묘년을 보내고 다가오는 갑진년에도 종회 앞날에 발전을 빌며 회의를 마쳤다.

– 광천부원군파종회 총무이사 종두 記

임시 대의원회의

자문회의

좌통례공파종회

■ 홍문관 교리공 묘역정비 고유제 봉행

2023년 11월 11일.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산52-3번지에서는 홍문관(弘文館) 교리공(校理)휘 한명[諱 漢命 1651~1687, 문익공(諱 元禎)의 차자] 선조의 묘역 정비 고유제를 올렸다.

그동안 공의 묘소가 경사도가 심한 지역에 위치하여 후손들의 발길이 뜸하였으나, 이를 항상 안타까워 하던 중 후손들의 모임인 관기종중(館基宗中) 회장 수생(壽生), 총무 수덕(壽德) 및 전 종인들이 힘을 모아 산림도로를 개설하여 후손들이 묘소 앞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교리공 묘역정비 고유제 봉행

이에 종중에서는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300여 년 만에 선조님의 묘역을 정비하게 되었고, 오늘의 고유제를 올리고 세일사를 봉행하게 되었다. 초헌은 관기종중 수생 회장, 아헌은 중진(仲鎭) 현종, 종헌은 칠곡종회 승호(承鎬) 회장이 헌작을 하였고, 집례에는 관기종중 수덕(壽德) 총무가 맡아 진행하였으며, 귀암공 후손 30여 명이 참례를 하였다.

고유제와 세일사를 마친 종인들은 떡국과 제사음식을 함께 나누며 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교리공 선조의 묘역 정비를 계기로 숭조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환절기 종인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챙기시라는 건배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 홍문관 교리공의 자는 남기(南紀), 호는 낙애(洛涯). 휘는 한명(漢命)으로 고조부는 좌승지에 증직된 희복(諱 熙復)이고 증조부는 참의(參議) 석담(石潭)선생 윤우(諱 潤雨)이다. 조부 홍문관 부응교 도장(諱 道長)은 호가 낙촌(洛村)으로 좌찬성에 증직되었고, 아버지 귀암(歸巖) 원정(諱 元禎)은 이조판서로 영의정에 증직되고 문익공의 시호를 받았다. 어머니는 성주 이씨로 좌부승지를 지낸 이언영(李彦英)의 딸이다. 이조참판 담명(諱 聃命)의 아우이다. 공은 효종 2년(1651) 경상도 성주목 칠곡(현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에서 삼 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현종(顯宗) 7년(1666) 병오 식년시 사마 생원에 3등(三等)으로 합격하고, 숙종(肅宗) 1년(1675) 을묘 증광시 을과에 2위로 급제하였다. 숙종 2년(1676) 검열(檢閱), 숙종 3년(1677) 성균관 전적에 승진하고 옥당관(玉堂官)으로 야대(夜對)에 참여하여 근학(勤學)、애민(愛民)、납간(納諫) 및 작상(爵賞)을 아껴야 하고 사령(辭令)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아뢰었다. 또한 한원에 있을 때는 숙종께서 연소하지만 박식(博識)하다고 유신(儒臣)과 같이 경연(經筵)에 들어와 치도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고 주역(周易)을 진강하게 하였으며 문학의 선비를 선택할 때 공을 으뜸으로 삼았다.

숙종 4년(1678) 정언(正言)에 제수되고 가을에 병조 정랑에 제수되었다가 평안도 암행 어사(平安道暗行御史)로 파견되어 영변(寧邊)은 별도로 가합(可合)한 병사(兵使)를 차송(差送)하여서 이목(耳目)을 번거롭히지 않고 군병(軍兵)을 연습(鍊習)시키며, 가산(嘉山)은 난(亂)에 임하여 진관(鎭管)에 나아가지 말고 효성령(曉星嶺)을 자수(自守)할 일과 산림(山林)의 수목(樹木)을 장양(長養)하게 하고, 변민(邊民)의 이사(移徙)를 금지하

는 등의 일을 진달하였다.

숙종 5년(1679) 봄에 지평에 임명되었는데, 이해에 석곡옥(石谷獄)에 대한 의론이 일어나, 송시열(宋時烈)을 안율(按律)하여 죄주기를 강력 요청한 일에 참여하였다. (공이 글을 지었다) 석곡옥이란 숙종 1년(1675)에 송시열이 유배되자 스승을 변호하기 위해 예론의 지종과 윤휴(尹鑴)와 허목(許穆)을 비판하는 책을 만들어 숙종께 바쳤는데, 숙종이 노여워하며 연루자들을 국문하고 유배 보낸 일을 말한다.

이어 공은 도당록(都堂錄)에 선임되고 홍문관 부교리에 제수되었다.

숙종 6년(1680) 석곡옥에 대한 의론으로 옥사가 재기되어 공은 무고로 유배형이 내려졌다. 이후 공은 3년 동안 충청도 충주, 제천, 그리고 경상도 영천(현 경상북도 영주시)으로 세 번이나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화산(花山, 안동 하회)에 작은 우거처를 마련해 두었다가 숙종 11년(1685)에 옮겨 살았다.

숙종 6년(1680) 경신출척(庚申黜陟, 2차 예송사건 이후 정계에서 밀려났던 서인이 남인을 역모로 몰아 숙청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에 연루되어 부친 문익공(諱 元禎)이 장살(杖殺)당하자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오랫동안 앓다가 숙종 13년(1687) 6월 22일 서거하니 37세였으며 홍문관 응교에 증직되었다.

부인은 선조의 손자인 평운군(平雲君) 이구(李俅)의 딸이다.

– 좌통례공파 관기종중 총무 수덕 記

■ 재경화수회 산악회 2023년도 마지막 행사

재경화수회 산악회(회장 종철)는 2023년 12월 17일(일요일) 아침 7시 잠실 종합운동장을 출발하여 경부고속도로 죽전 정류장에서 주변 거주 회원들과 합류하여 강원도 심곡항으로 달렸다.

이날 종철 회장을 비롯해서 대종회 용두 상임부회장, 재경화수회 충교 회장 등 35명이 참석하여 관광버스로 강원도 심곡항에 11시 30분에 도착하여, 참석한 산악회원 기념촬영을 하고 심곡 바다부채길로 출발하였다.

정동 심곡 바다부채길에 있는 "정동" 은 임금이 거처하는 한양(지금 경복궁)에서 정방향으로 동쪽에 있다는 뜻에서 유래 되었다고 전해 지며, "심곡" 은 깊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란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정동진의 부채끝은 지형과 탐방로가 위치한 지형과 모양이 바다를 향해 부채를 펼쳐 놓은 모양과 같아서 "정동 심곡바다 부채길" 로 지명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천연기념물 제437호로 지정되었다.

출발한지 1시간 30분(2.86㎞) 동안 이어진 동해 바다의 푸른 물결과 웅장한 기암괴석은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천혜의 비경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오후 1시에 정동진 썬크루즈 주차장에 도착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출발하였다. 주문진에 있는 황금어장 식당에서 회 정식과 반주로 막걸리 한 잔씩 하고, 건어물 시장에 들러서 미역을 한 사람당 하나씩 선물해 주었다. 버스에 승차하여 마지막으로 양양에 있는 휴휴암을 들러보고, 서울 귀경길을 서둘러 출발하였다. 밤 8시 30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 도착한 일정에 회원 모두가 안전하고 무사히 관광을 마쳤다.

재경화수회 산악회 연말 산행

– 산악대장 겸 총무 종덕 記

■ 광주이씨 독립유공자 유족회 소식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의를 마치고

광주이씨 독립유공자 유족회(회장 용위)는 4분기 정기회의를 12월 14일(목) 오전에 대종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회의에 앞서 처음 회의에 참석하신 철민(애국지사 錫. 좌통례공파 대전거주), 신입회원 양재 회원(좌의정공파, 제주 거주) 참석하고, 회원님들은 박수로 환영하였다.

회의안건은 유족회 발족시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행한 업무보고 및 회계보고, 이어서 2024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을 보고하고, 동 안건은 2024년 정기총회에서 의결키로 하고 회의를 끝냈다.

점심 식사 장소인 하나로 회관에서 회원 서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2014년도 정기총회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2024년 1월 광이회보에 홍보하실 분은 순국선열이신 병식(秉植, 좌의정공파 18대, 증손자 양재) 선생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독립운동가 병식 (秉植, 1861. 9. 12 ~ 1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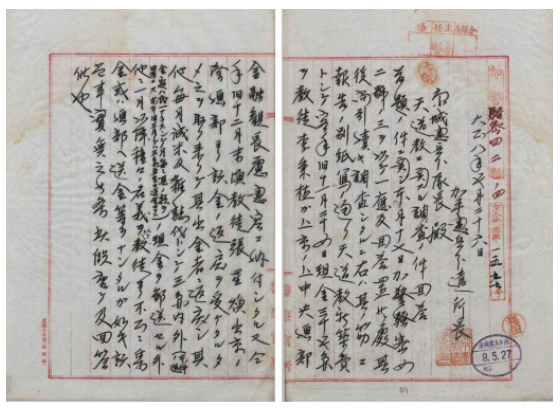
公은 좌의정공 휘 극균(克均, 1437~1504)의 차남 세건(世健)의 13대손으로 좌의정공파 18대손이다. (『광주이씨대동보』 권지3, 1988년, p.924 참조) 공은 지금의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의 선영하(先塋下) 마을에서 태어났으나, 한때 천도교인으로 독립운동을 하며 거주하던 가평군(加平郡) 북면 목동리 출신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조선말에 공의 부친 정희(鼎會)는 신변에 이상(동학혁명 시 보부상과 충돌)이 생겨 구속되자 탈옥하여 행방을 감추었다.

이후 보부상 패거리가 집을 습격하여 파괴하자 공은 문전옥답(門前沃畓)을 버려두고 가솔(家率)을 이끌고 경기도 가평으로 이주하여 활동하였다. 공은 학문에 조예가 깊어 서당 훈장으로 활동하던 중 1905년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을 하자 1907년에 신석주(申錫周) 정천수(鄭天洙) 이계승(李繼承) 장성환(張星煥) 등과 함께 천도교에 입교하여 가평교구장이 되어 가평 천도교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공은 가평교구장에서 퇴임한 후에도 당시 경성의 천도교 중앙총부와 연락하고 협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동학이 천도교로 개명할 당시부터 천도교 중앙총부에는 후일 33인 민족대표 가운데 한분이 되신 우리 문중의 독립운동가 종훈(鍾勳, 1858년~1932년) 선생이 고위직에 있었다. 공의 차자 종래(宗來, 1906~1987)에 의하면 "공은 주로 재무(財務)를 책임져 중앙총부와 협력하였고, 포천에 있던 많은 부동산을 팔아 독립자금으로 지원하셨다" 로 알려지고 있다.

공과 한마을에 살던 시우(詩友) 이규봉(李圭鳳, 가릉보성학교 한문 교사)이 고종의 인산일을 맞아 상경하던 중 경성에서 만세시위를 목격하고 경성에 있던 제자들과 만나 3.1운동에 대한 배경과 경위를 듣게 되었다. 이규봉은 가평지역에서도 만세시위를 전파할 뜻을 가지고, 『독립선언서』 2매와 『독립신문』 1매를 휴대하여 가평으로 돌아왔고, 3월 7일 이규봉은 아회(雅會)를 열고, 공과 장기영(張基英) 정성교(鄭聖敎) 이만석(李萬錫) 정재명(鄭在明) 이병찬(李炳贊) 등 20여명과 만세시위를 논의하였다.

당시 가평에서의 만세시위는 천도교 측의 계획


가평헌병분견소가 경성헌병대장에게 보고한 보고서

1919년 5월 26일자 보고. 천도교인 이병식 선생이 지난해 11월 25일에 천도교 중앙총부에 당시 현금 30을 전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 전달한 사실은 빙산의 일각으로 그 하나가 발각된 것이다.

가평 의병 삼일운동 기념비

적이고 조직적인 만세운동이었다.

천도교 중앙총부에서는 "당시 천도교는 각 교당의 핵심들에게 배후에서 만세시위를 몰고 나가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공은 가평지역의 만세운동을 자문하고 쓸 경비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거사일을 3월 15일로 정하고 만세시위에 쓰일 태극기와 통문을 준비하는 한편, 만세시위 상황을 전하고 천도교인과 기독교인이 힘을 합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다. 그리하여 태극기 약 1,800개와 500여 매의 비밀 통문이 제작되었으며, 3월 14일 밤에 정기복(鄭基福) 정천수(鄭天洙) 최인화(崔仁和) 등이 이를 각 동리에 배포하며 만세시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다.

3월 15일 오전 9시가 되자 50여 명의 주민이 북면의 성황당에 집결하여 만세를 부른 후 북면사무소 앞으로 이동하여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를 불렀다. 이어 가평 읍내로 이동하여 군청과 학교, 금융조합 등을 돌며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들이 이들을 제지하고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며, 저녁이 되어서야 해산하였다.

이에 일제 경찰은 주도 인물들에 대한 체포에 나서 이규봉 · 이윤석 부자와 최기선 최인화 최종화 최용화 등을 붙잡았다.

공은 만세시위에 참가한 후 귀가하였다가 이튿날 새벽에 붙잡혔다. 이들 주도 인물들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리자 장기영 정성교 등이 이들을 탈환하기 위하여 3월 16일 오전에 2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가평헌병분견소를 향해 이동하였고, 북면 목동리 당고개를 지나던 중, 이들의 이동을 감지하고 출동한 헌병들과 맞닥뜨려 투석을 하며 격투를 벌였다. 이로 인하여 장기영 정성교 이교성(李敎聖) 홍종선(洪鍾先) 등 전날 붙잡히지 않았던 인물들도 붙잡혀 체포된 자의 수는 수십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2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른 주모자들의 후사(後事) 처리를 위한 비호(庇護)로 공이 가담한 정도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역시 보안법위반 및 소요죄로 기소되어 같은 해 4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형을 언도받았다.

이에 항소하였으나 7월 14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하여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공은 보훈처 추서 기록에는 1938년 5월 7일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족보애는 1942년에 사망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는 공의 차자 종래가 1930년대 중반에 포천으로 귀향하여 거주하였는데, 차자를 찾아 1938년에 귀향한 것을 1942년에 작고한 것을 오인(誤認)한 것이다.

공의 묘소는 현재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806-2 선영(先塋) 자좌(子坐)에 있고, 공의 배위 수성최씨의 묘소는 가평군 북면 소목곡에 있으며, 공의 장남 명래(明來, 1892~1941)의 묘소는 가평군 북면 목동리에 있고, 공의 차남 종래의 묘소는 포천시 선영에 있다.

공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명래(明來)의 장손자로는 경재(敬載, 1948~)가 있고, 차남 종래(宗來)의 장손자로는 애서운동가 양재(亮載, 1955~)가 있다. (『광주이씨대동보』 권지11, 1988년, pp.368~370 참조)

– 유족회 총무 호순 記

2023년도 대종회 지원 백일장 당선작

제28회 둔촌청소년문학상

● 초등부 대상(경기예총회장상)

5만 원으로 얻은 깨달음

서현초등학교 4학년 이지아

"야, 너네 엄마 지갑에서 5만 원 꺼내서 맛있는 거 사 먹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가 하루는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이렇게 말했다.

언니는 나랑 친해서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다. 내가 8살, 언니는 10살이었다.

나는 심심하기도 하고 큰돈을 만져보고 싶기도 했다. 용기를 내서 엄마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며칠 동안 5만 원을 숨길 장소를 찾다가 인형 뱃속에 숨겼다.

마침내 5만 원을 평평 쓰는 날이 왔다. 이상하게도 뒤통수가 따가웠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나 혼자서 안절부절못하였다. 꼭 누군가가 나를 째려보는 것만 같았다. 엄마 돈을 훔치지 말라는 하느님의 신호였던 것 같다. 하지만 난 그 신호를 무시했다.

먼저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라면을 먹자는 언니의 조언 때문에 라면을 샀다. 그리고 치즈와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는 언니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치즈 두 개를 샀다. 라면을 치즈와 같이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순간 언니가 노래를 불렀다.

"맛있는 라면. 특별하고 맛있는 라면! 시간아, 빨리 가라. 똑딱똑딱. 나 배고프다. 똑딱똑딱!"

내가 라면을 다 먹었을 때쯤 언니가 달콤한 라떼가 먹고 싶다고 했다. 달고나가 한창 유행할 때라 달고나 라떼를 사러 동네 카페로 갔다. 달고나의 맛이 잘 드러나면서 우유로 잘 어우러지니 환상의 맛이었다.

얼마 남지 않은 달고나 라떼를 빨대로 쭉쭉 빨고 있을 때 장을 보고 돌아오시던 언니의 외할머니께서 나와 언니가 먹을 것을 사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꾸중하셨다.

"야 너네, 지금 뭐하는 거야? 거들먹거리며 달고나 라떼만 마시고 있어? 안 되겠다. 따라와."

나는 주사를 맞은 것처럼 힘이 푹 빠졌다. 언니의 외할머니가 나의 엄마에게 내가 한 일을 얘기하고 있을 때 난 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있었다. 커다란 돌덩이가 내 팔을 친 것처럼 두 팔이 얼얼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엄마께서 매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 눈만 끔뻑거리는 날 보고 엄마께선 호통을 치지 않으셨고 나를 잘 나무라며 말씀하셨다.

"나도 어릴 적에 네 이모와 같이 마트에서 캐러멜 하나를 훔쳐봤어. 하지만 그날 밤 머리가 혼란스럽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 그래서 난 네 이모와 같이 네 할머니께 내가 캐러멜을 훔쳤다고 말했어. 그래서 된통 혼이 났지….네가 앞으로

잘해야 하는데…. 다음번엔 그러면 안 돼. 너도 알지? 엄마가 믿을게. 다음번에도 한 번 더 그러면 혼난다. 알았지?"

'아이 그냥 혼을 내주시지 뭔 이런 고생까지 만들어.'

난 속으로 투덜댔다. 하지만,

"엄마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잘못한 것도 많고,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 줄 알았어요. 정말 온 진심으로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렇게 말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내 입 따로 마음 따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나쁜 말은 아니다.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도 않고….

한편으로는 좋은 선택 같기도 했다. 엄마가 내 방문을 닫을 때까지 멍하니 있었다. 한참 후 난 내 머리에 약하게 꿀밤을 때리며 혼자 조금 웃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나는 누구의 돈도 탐을 내본 적이 없다.

이제 11살이 된 지금, 만약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엄마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는 8살 나를 본다면, 난 온 힘을 다해 돈을 훔치려는 8살 나를 막을 것이다.

정직하게 돈을 다루는 법을 깨달아야 하는 나, 지금도 부족할진 몰라도 그 일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다. 지금은 돈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 모은 돈은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 **중등부 대상(경기예총회장상)**

둔촌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

향남중학교 1학년 유시윤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아빠를 둔 딸은 피곤하다. 매일매일 독서를 하고, 현장체험학습도 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번에는 이병원 생가에 가서 글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둔촌 이집 선생님 묘역을 가자고 하신다. 묘역에 도착하여 아빠의 설명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산소가 많은 나라이다. 세계에서 산소가 제일 많다. 산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조상님을 잘 모시고, 효도를 실천한다는 뜻이다. 산소 중 60%는 주인이 없다. 곧 관리도 안 되고 후손들이 조상의 묘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뜻이다. 반대로 주인이 있는 산소는 그만큼 효도를 잘 실천하는 잘된 후손이라 할 수 있다. 이집 선생님 묘역은 왕릉처럼 매우 넓고 컸다. 매우 관리도 잘 되었으니 후손들이 효도를 잘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소가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굴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집트, 중국은 무덤이 많이 훼손되어있다. 이집트와 중국의 무덤 속엔 금은보화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중국 황제의 무덤 속에는 엄청난 보물들과 금은보화가 있으니 도굴꾼들이 그 무덤을 파헤쳐서 훼손된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무덤은 훼손되지 않았다. 무덤 속에 대부분 금은보화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검소하고 선비정신을 지킨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빠는 둔촌 선생님을 소개한 안내문 앞에서 또 말씀을 시작하셨다. 경기도 기념물 219호로 지정되어있다. 해마다 6월 초 둔촌 선생님의 제사를 이곳에서 지낸다. 마당이 왜 이렇게 넓을까. 후손이 정말 많고 잘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제사가 끝나면 잔치가 벌어진다. 후손이 참 화려하다. 서울대 총장을 지낸 이수성, 가수 이효리 등이 둔촌 선생님의 후손이다.

이런 아빠의 말씀을 들으니 지난번 썼던 글이 새록새록 생각났다. 먼저 둔촌 선생님은 효도를 실천하신 분이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지금 편찮으시다. 아빠께서는 우리 할아버지를 잘 모신다. 우리 가족은 김장할 때마다 할머니 댁에 가서 함께 한다. 초겨울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친구분들, 부모님과 나, 동생, 고모, 사촌오빠가 모두 온다. 나와 동생, 사촌오빠는 김장을 직접 하진 않지만 어른들이 김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엄마 아빠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도 효도를 한다. 경상북도 구미에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전화도 자주 드려서 안부를 여쭌다. 갈 때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 필요로 하시는 물건을 많이 사 가신다.

"성함은 유원열, 육군 사병으로 하사였다. 군번은 0179250이고, 국군 2사단 소속이다. 6 · 25 전쟁에 참가했다가 1952년 10월 26일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셨다. 현재 현충원에 모셔져 있다." 바로 우리 증조할아버지 비석에 새겨진 글이다. 둔촌 선생님께서 고려를 위해 충성하셨다면, 우리 증조할아버지께서는 6 · 25전쟁 때 나라를 위해 싸우시다 돌아가셨다.

둔촌 선생님과 최원도의 우정을 생각하니 아빠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단금지교' 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친구 사이의 우정이 두터워지면 쇠도 자를 수 있다는 뜻이다. 두 분의 우정은 단금지교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기쁠 때 기쁨을 같이하고, 힘들 때 도움이 되면서 서로를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 배신이란 상대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여 상대를 이용하고 버리는 것이다. 그런 친구 사이에는 둔촌 선생님과 최원도 같은 우정이 있을 수 없다.

둔촌 선생님 하면 제비의 의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의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 라고 나와 있다. 오늘날 보면 제비의 자살이 꼭 올바르다고 볼 순 없다. 그렇지만 그 당시 제비는 주인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다.

오늘날 보면 사기꾼도 많고, 보이스피싱, 형제간 재산으로 일어나는 싸움 등등, 모두 의리가 없어서 그렇다. 의리가 있으면 학교폭력도 없어질 것이다. 명절에 오랜만에 모인 형제끼리 재산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시면 가슴이 찢어질 것이다.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의리가 아닐까 한.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동생과 부모님 재산으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공평하게 나누고 끝까지 자매간의 의리를 지키고 싶다.

둔촌 선생님은 신돈이 죽으므로 4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셨다. 그러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으셨다. 나라가 혼란했기 때문이다. 지조를 지킨 것이다. 지조를 지키면 당장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지조는 남에게 교훈이 되고 후손에게 모범이 된다. 둔촌 선생님처럼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지조를 지키면서 살고 싶다.

나는 엄마와 같이 동화작가가 되고 싶다.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며 교훈을 끼치는 동화를 쓰고 싶다. 그러기 위해 독서를 많이 하고 체험학습도 자주 다닐 것이다. 둔촌 선생님처럼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조상이 되고 싶다.

● **고등부 대상(경기예총회장상)**

닮은 꼴

운중고등학교 2학년 송지우

친구의 가방에 걸린 핑크색 곰돌이, 내 가방의 파란색 곰돌이와 비슷했다. 어깨 쯤 오는 머리와 흐트러진 앞머리 몇 가닥과 여름만 되면 이유 없이 차오르는 손의 땀까지, 우리는 닮은 게 많았다. 필통 색깔과 가방 등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오히려 서로 색다른 매력이었다.

우리는 항상 같은 시간에 끝나지 않아도 같이 하교하곤 했다. 오늘 유독 기운 없어 보이는 주현이의 상태를 나는 조금 더 살펴야했다. 그랬다면 모든 게 괜찮았을 텐데.

주현이는 학교를 마치는 종이 울리자마자 책상을 박차고 뛰쳐나가 버렸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멍했다. 나는 나간 문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주현의 뒤를 쫓았다.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가족 이야기만 꺼내면 어색하게 웃어 보이던 모습이 아른거렸다. 여름에도 긴팔만 찾아 입던 주현이를 내가 모를 리가 없었다. 가방끈을 잡은 손에 땀이 났다. 골목 사이사이에 숨어가며 걸음을 옮겼다.

주현이가 끝내 걸음을 멈춘 곳은 낡은 빌라였다. 주변을 둘러보던 주현이는 빠른 걸음으로 건

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트럭 뒤에 숨어 있던 나는 고장난 공동현관 문을 통과했다. 내려가는 계단과 올라가는 계단 그 경계선에 내가 서 있다. 여기서부턴 나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결정될 것이다. 마른 침을 삼키고 발을 움직였다.

쨍그랑, 푹 숙이던 고개가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맞춰 들렸다. 곧이어 와르르 무언가가 무너져 내린다. 심장 박동 소리가 어찌나 큰지 문 너머에서도 들릴 거 같았다.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다. 계단을 미끄러지듯이 내려갔다.

주현이 집은 지하였다. 손이 초인종에 이끌려 두 세 번 연달아 눌렀다. 맑은 초인종 소리가 지하를 가득 채웠다. 다른 소리는 더 들리지 않았고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초조해하면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데 안에서 둔탁한 소리와 동시에 짧은 비명이 들렸다. 핏줄이 잔뜩 선 채로 나는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달달 떨리는 손으로 전화 키패드에 112를 입력했다. 자꾸 오타가 나서 몇 번 지웠다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대충 상황을 설명하고 빨리 와 달라고 한 후 다시 문을 두드렸다. 손 옆구리가 곧 피라도 날 듯 빨개졌다. 부르터지는 두 손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우리 집에서 들리던 날이 생각났다. 우리 집도 지하였다. 주현이와 나와는 닮은 점이 많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갔다. 그날 우리 집 현관문이 잠겨있었다. 안에서 말소리가 드문드문 끊겨 들렸다. 말소리들은 볼륨이 점점 높아져 문 밖까지 울려 퍼졌다. 보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다 그려졌다. 무언가 떨어지고 깨지며 말은 더 거세졌다.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싸움이 더 악화되지 않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닫힌 문과 부어오른 두 손을 바라보며 나는 무력감을 느꼈다.

문 하나 사이에서 아빠의 고함소리가 몸을 움츠리게 했다. 슬슬 어두워지는 지하가 신고를 받은 경찰차의 불빛으로 밝아졌다. 경찰 두 명이 계단을 신속하게 내려왔고 곧 문을 따기 시작했다. 도어 브리칭 장비로 문고리를 물리게 해서 비틀었다. 잡는 대로 찌그러진 문고리가 덜렁거렸다. 나는 엄마가 무사하길 바라고 또 바랐다. 평소에는 신을 믿지 않았어도 지금만큼은 믿었다. 누구든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집 안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눈에 보이는 광경은 끔찍하다 못해 소름이 끼쳤다. 검붉은 피가 가득한 채로 쓰러져있는 어머니, 부엌에는 얼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어머니의 몸이 바닥에 내팽겨져 있었다. 그 옆에 깨진 꽃병을 들고 허공만 바라보는 아버지까지. 너무나 적나라하고 현실적인 범죄현장에 그대로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정신은 혼미했다. 사람을 붙잡고 병원을 물었고 한 경찰의 소리침에 나갔던 정신이 조금은 돌아오는 듯 했다. 옷에 그려진 경찰 문양만을 향해 엄마가 간 병원을 물었다. 한숨만 내쉬는 경찰의 옷 끄트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아무 말 없이 따라오라는 몸짓에 잠자코 뒤를 따랐다. 엄마는 잘 있을까. 병원에 있다면 수술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온갖 상상과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날 줄 몰랐다.

늦은 밤 복도에는 경찰과 나뿐이었다. 경찰은 나를 데려다주고는 빠르게 떠났다. 신경을 이어야한다는… 의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아버지는 어머니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하고 있었다. 알 수 없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슬픔이 공존하며 나를 부추겼다. 나와 마주친 아버지의 눈, 악마의 눈을 새싹부터 잘라버려야 한다. 아버지는 항상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주현이가 우리 어머니처럼 구급차에 실리고 문이 닫히는 모습을 멀리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주현이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에게 멱살을 잡아 올리고 싶었다. 나에겐 이 상황이 너무나 익숙했다. 구급차를 향해 달려갔다. 손이 터져라 문을 두드렸다. 주현이와 눈이 마주쳤다. 고개를 끄덕이는 주현이의 부어오른 피투성이 얼굴에 맑은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너무나 닮았던 주현이와 나, 서로를 바라보며 웃으며 하교하던 때가 먼 과거처럼 느껴졌다.

오늘 학교에서 유독 기운 없어 보이던 주현이를 싣고 구급차가 떠났다. 왕복 8차선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린다. 어, 주현이다. 반대편 횡단보도에 서있는 주현이를 발견했다. 정말 보고 싶으면 헛것이 보이나보다.

제12회 둔촌백일장

● 초등부 장원(운문)

갈등 과자

이다연(서울 고현초 5)

관계라는 반죽은
부드럽고 달지만

악한 말의 오븐에
잠깐이라도 구우면

쉽게 타버려서
갈등이라는 과자가 된다

갈등이라는 과자는
딱딱하고 쓰지만

사과하는 말의 크림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쉽게 달아져서
화해의 과자가 된다

● 초등부 차상(산문)

세상에서 가장 고달픈 밥

임하율(당진 기지초 5)

세상에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많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서 혼자 먹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직장에 가셔서 혼자 먹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외로운 건 따로 있다.

나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셔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학교에 갔다 오면 항상 텅텅 비어 있는 집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외치며 엄마가 싸놓고 가신 간식을 먹었다. 학원을 다녀오고, 숙제를 하고, 엄마가 해놓고 가신 저녁을 먹었다. 나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싫었다.

특히 밥 먹는 시간이 말이다. 밥을 먹다가 복도에서 툭툭 소리가 나면 괜히 무서워져서 움찔거리게 되었다. 옛날에는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없었다. 그때는 온 가족이 하하호호 웃으며 즐겁게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 밥을 먹는 시간이 너무나도 싫다.

이제 내가 밥을 먹는 식탁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내가 우걱우걱 먹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엄마의 정성이 담긴 반찬이 랩으로 돌돌 말린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의 입도 저 랩이 꼭꼭 막은 것 같아 괜히 랩이 얄미워졌다.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게 엄마 아빠가 일을 그만두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다. 다른 사람들은 엄마나 아빠 중 한 명이 일을 하지 않아서 평일에 놀러도 가고 같이 식사도 한다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혼자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한번은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싫어서 엄마에게 투덜거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네가 몇 살인데 그런 말을 하냐며 세상 사람들 다 혼자 있는 거라고 혼내셨다. 나는 엄마가 내 마을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이 너무 서운했다. 그리고 우리 반에는 엄마가 일을 쉬셔서 하루 종일 부모님과 같이 있다고 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한데 세상 사람들이 다 혼자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잠시 후, 엄마가 티브이를 보며 말씀하셨다. 티브이 속에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서 혼자 사는 한 아이가 폐지를 주우러 다닌다는 광고였다.

엄마는 나보다 어린 저 아이는 나보다 훨씬 더

외롭고 고달픔 속에서 살아간다고, 저 아이는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사는데 나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면 속 아이의 눈에는 건드리기만 하면 울음을 터뜨릴 듯 처량한 눈물이 고여 있었고 발자국 속에는 슬픔과 고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엄마 말씀을 들으며 티브이를 보는데 너무 부끄러웠다. 부모님을 잃고 하루에 한 끼도 아슬아슬하게 챙겨 먹는 외롭고 고달픈 저 아이도 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혼자 있다고 불평불만을 가지던 내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외로운 밥은 티브이 속 아이들이 먹는 혼자 먹는 밥이라고 하셨다.

곧이어 티브이 속에는 형편이 좋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예전에는 무관심했던 봉사자들이 너무 멋져 보였다. 그 봉사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빛이 밝게 나는 사람들이었다. 티브이에 나오는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빛이 났다. 엄마는 나중에 돈을 모아서 일을 그만둔 다음 저렇게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

나도 언젠가 어른이 되면 티브이 속에 나온 봉사자들처럼 빛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내 모습을 보니 내가 벌써 어른이 된 것 같다.

● 청소년부 장원(운문)

생명의 땅

한준혁(서울 한영고 3)

커다란 전시실에
빛과 소리로 만들어진
가상의 해변
넘실대는 파도 위로
오로라가 무지개색 커튼처럼 펄럭인다

텅 빈 전시실 벽에
끝없는 수평선을 만들어 내는
무수한 빔프로젝터들
전시실 바닥은 푹신했다
사람들은 모래사장 대신
전시실 바닥에 앉아 바다를 구경했다

발밑까지 밀려오는 파도
하지만 파도의 감촉은 느껴지지 않았다
넘실넘실
생동감 넘치게 밀려오던 파도는
모래톱에 스며드는 대신
반짝이는 그래픽으로 잘게 흩어졌다

어둑한 전시실엔
소금 짠 내 대신
에어컨 방향제 냄새가 옅게 퍼져있다

소금기 없는 바다를 배경으로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 몰려들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갈매기 울음소리는
셔터음에 묻혀 사라졌다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얼굴들 위로
찌그러진 파도가
일렁이고 있다

● 청소년부 차상(산문)

민들레가 살아가는 방법

김수빈(제주 남녕고 3)

아침 6시, 진서는 스터디카페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진서는 입 안이 쩍 벌어지도록 하품을 했다. 피곤해서 눈을 비비고, 힘없이 걸어가더라도 진서는 참고 자신의 뺨을 때렸다. 진서에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다.

스터디카페 앞엔 민들레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민들레는 근처에 흙이 없는데도 콘크리트를 딛고 억세게 자랐다.

진서는 민들레의 모습이 마치 자신과 같다고 생각했다. 민들레도 언젠가 홀씨가 되어 이곳저곳으로 날아가는 날을 꿈꾸며 지금의 고된 환경을 견디는 것일 테지. 진서는 손에 물을 가득 담아 민들레에 뿌렸다.

진서는 스터디카페 가장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초등학교 임용고시 대비 문제집', '초등학생을 다루는 백 한 가지 방법' 진서의 꿈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진서가 이런 꿈을 갖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자신의 손으로 자라나는 생명을 돌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은 진서를 말렸다. 교사는 전망이 너무 불확실해. 미래에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 1순위라는데, 괜찮겠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진서의 꿈은 점점 더 확고해져 갔다. 진서는 매일 다른 초등 임용 문제집을 풀고, 교사 참고서를 읽었다. 매일이 값진 순간이었다.

하루치 분량을 끝내고 스터디카페에서 나오면 밖은 어느새 노을이 지고 있었다. 진서는 나가면서 민들레가 잘 있나 확인하기로 했다. 민들레 앞에 도착했을 때, 파란 볼캡을 쓴 꼬마 아이가 자신의 몸으로 민들레를 가리고 있었다. 진서가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등 뒤로 무언가를 숨겼다. 민들레는 꽃잎이 대부분 뜯긴 채 초라하게 놓여 있었다. 아이의 감춰진 손 아래로 꽃잎이 후드득 떨어졌다.

아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하더니 금세 태연하게 콧노래를 불렀다. 진서는 오늘 배운 '교사의 행동 첫 번째, 아이가 잘못한 것처럼 보여도 먼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볼 것'을 떠올렸다. 진서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아이에게 이유를 물었다. 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요." 아이의 간결한 말에 진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냥? 그냥이라고? 어떻게 그냥이라고 할 수 있어. 너 때문에 다친 민들레는 안 보이니?" 진서는 아이의 이유에 화를 내지 말고 공감하라는 교사의 행동 두 번째를 까먹은 듯 아이에게 큰소리로 화를 냈다. 아이는 소리에 놀랐는지 울며 골목 너머로 뛰어갔다. 진서는 아차 하며 아이를 뒤쫓으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내가 왜 그랬지. 바보같이..."

진서는 집으로 돌아가며 자기 머리를 콩콩 쳤다. 지금까지 아이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왔는데, 자신이 왜 그때 무턱대고 화만 냈는지 원망스러웠다. 진서는 아이를 다음번에 만나면 꼭 제대로 얘기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진서는 민들레 모양 사탕을 들고 스터디카페 앞으로 갔다. 어제 봤던 아이가 쭈뼛거리며 진서에게 다가갔다. 진서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듯했다. 진서는 아이의 앞에 쭈그려 앉아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언니가 어제 화내서 미안해. 그래도 어제처럼 꽃을 함부로 꺾으면 안 돼. 꽃이 아파하잖아." 진서의 말을 들은 아이는 부리나케 어딘가로 뛰어갔다. 잠시 뒤 아이는 숨을 헉헉대며 손에 흙과 민들레 씨앗을 들고 왔다. "꽃이 예쁜데, 뿌리까지 뽑아 가면 더 이상 안 자랄 것 같아서 잎만 뜯어가려고 했어요, 죄송해요."

진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의 서투르지만 아름다운 생각. 그 생각을 잘 키워 나가게 하는 것이 진서가 바라는 것이었다. 진서는 아이에게 민들레 사탕을 건넸다. 아이의 입에서 상큼한 민들레 향이 퍼졌다.

진서와 아이는 콘크리트 위에 흙을 다지고 그 위에 얕게 구멍을 파서 씨앗을 심었다. 둘의 손에 흙이 잔뜩 묻었다.

민들레 바닥엔 아이의 순수함과 진서의 열정이라는 양분이 가득 들어갔다. 이 생명의 땅에서 민들레는 잘 살아갈 것이다.

● 일반부 장원(운문)

노인 의자

정보라(경기도 남양주시)

곧 다리 하나 부서질 것 같은
노인 의자 하나
누추한 겉모습에도 세월의 향기에
누군가 이곳에 앉는다.

화려하고 튼튼한 청년 의자 하나
영원히 부서지지 않을 듯한 모양새에
누군가 또 이곳에 앉는다.

볼품없는 노인 의자
튼튼한 청년 의자
모두 쏟아지는 무게를 버티고 서 있다.

노인 의자가 바람에 휘청인다.
무게가 버거운 청년 의자
이내 손을 뻗어 잡고 있다.

모양새는 달라도
내어줌의 몫을 같이 해내고
있음을 알기에

청년 의자가 태풍에 휘청인다.
지켜보던 노인 의자
이내 피할 길을 알려준다.
이미 수차례 겪어왔던 태풍이었기에.
결국 모두 같은 몫을 나누어
짊어진 의자임을 알기에

● 일반부 차상(산문)

인공지능

고미령(서울시 성동구)

'기계 앞에 머리와 어깨를 대고 서주세요. 곧 온수가 나오며 씻겨드립니다.' 요양원 환자로 입소한 내게 요양보호사 대신, 인공지능 로봇 '똑똑이' 가 배정되었다. 똑똑이는 말 그대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며 식사부터 목욕, 산책에 이르기까지 거동이 불편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똑똑이를 배정받기 전, 요양보호사와 함께하던 6개월의 시간들이 자꾸만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똑똑이는 과학적 설계와 정확한 계측을 통해 환자의 일상생활 리듬을 찾아 도움을 줬지만, 때론 똑똑이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내가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 요양보호사는 최대한 나의 입장을 배려하여 도움을 주었지만, 똑똑이는 안내에 따르지 못할 경우, 그저 같은 안내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산책을 위해 휠체어에 옮겨 타는 과정에서 똑똑이의 팔을 붙잡지 못하고 주저앉은 내게, 똑똑이는 20분째 같은 안내만 하고 있었다. "10분 내로 일어서지 못할 경우, 우측 하지 골절 발생률 80% 예상-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같은 멘트를 반복하는 똑똑이가 너무 미워서 소리를 질렀다.

"환자가 넘어졌는데, 분석이 먼저가 아니라 괜찮은지 물어보는 게 우선아냐?"

벌떡 일어나보니 사방이 어둡고 적막했다. 꿈이었다. 요양원에 입소한다는 생각은 먼 미래의 일이라 여겼으나, 그 와중에 인공지능 로봇으로부터 간호를 받는 설정은 신선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인간의 정서까지 헤아리지 못하고 기계적 한계를 수용해야 했던 꿈속의 상황이 아쉽기만 했다. 꿈속에서의 이야기를, 실제 10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 숙모님께 전했더니,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다.

"글쎄, 인공지능 로봇이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역시 사람에겐 사람이 채워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이야. 이틀간 대변을 못 보신 어르신이 푸짐하게 똥을 쌌다면 나는 엉덩이 짓무르지 않게 해드리고 이쁜 똥 쌌다고 칭찬해 줄 거거든. 인공지능 로봇은 뒤처리는 해주겠지만, 그 이상 뭘 바라겠어?" 숙모님의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현실화는 점점 우리 곁에 가까워지고 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방문했던 고깃집엔 항상 주문 전에 가족의 안부를 물어봐 주시던 아저씨 대신 로봇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주문받은 테이블로 정확히 음식을 전달해 주는 것까진 좋았지만,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느껴졌다. 인건비 문제로 사람을 고용하기보다는 로봇으로 대체하는 업장도 늘어나고 있고, 조만간 모든 궁금증과 일 처리를 인공지능에 위탁해야 할 미래가 오고 있다.

미래에 사라질 직업군들이 나열되고,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평정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인공지능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도 인간의 중심은 인간의 존엄성을 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프거나 힘들 때 따스한 말 한마디 전하는 것- 따뜻한 온도로 마음을 전하는 것- 정확하고 빠르게 달려가도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며 주변을 헤아리는 것처럼, 인간 본연의 진심을 잃지 않아야 하리라. 언젠가 환자분이 고객센터에 올려주신 칭찬 글을 떠올려 본다.

"검사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괴로웠는데, 선생님께서 안심시켜 주며 손을 꼭 잡아주셔서 검사 무사히 잘 받았습니다. 그때 잡아주신 손길 감사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내가 전한 것은, 어쩌면 인공지능으로 대체 불가한 '사랑' 이었으리라

둔촌중국백일장

● 소학조 장원

사진속 그 추억

심양시 화평구 서탑조선족소학교 심수아

주말 저녁, 나는 숙제를 마치고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다섯 살 때 엄마아빠와 여행가서 찍은 사진, 일학년 때 넥타이를 매면서 찍은 귀여운 사진, 나비춤 출 때의 이쁜 사진들을 보며 나는 흐뭇하게 웃었다. 또 한 장을 펼치니 광주에 전학가서 친구들과 찍은 56개 민족체험활동사진이 보였다. 문득 나는 광주친구들이 보고싶었다. 나는 딱 친구와의 사진과 함께 1년 전 추억으로 돌아갔다.

작년 겨울방학, 나는 아빠가 일하고 있는 광주로 놀러갔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는 광주로 전학한다고 하였다. 나는 울면서 싫다고 반항했지만 다 나의 공부를 위하고 이미 결정했다고 하였다. 울며 겨자먹기로 나는 그대로 광주에 눌러앉게 되였다.

광주학교에는 조선족이 없고 조선말 수업도 없기에 나는 조선말과 점점 멀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친구들이 광동언어로 대화하는 걸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 조선말이 생각났다. 태어나서부터 11년 동안 쭉 써왔던 언어 –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사무치도록 조선말이 그리웠다.

광주학교에는 매개 반마다 56개민족의 대표적인 옷을 입고 공영하는 예술절 활동이 있다. 3학년 4반 친구들이 한복을 입고 〈아리랑〉을 공연하였다.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전통문화를 보니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이다.

그 뒤로 나는 조선족 학교가 너무 그리워서 다

시 심양에 돌아가자고 엄마를 한참동안 설득했다. 엄마는 나의 의견을 존중하여 나는 다시 조선족학교에 돌아왔다.

개학 날, 익숙한 대문과 반가운 얼굴들이 나를 맞이해주었다. 조선족학교에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엄마의 부름소리에 나는 사진 속 추억에서 깨여났다. 나는 사진 속의 광주친구 이동이와 속삭였다.

"이동이야, 나는 조선족 학교에서 조선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너는 광주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가서 다시 만나자."

사진 속의 이동이도 그러자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 소학조 장원

휴게소

심양시 조선족제1중학교 박예진

빠듯한 하루를 채우고 나의 일부가 소진되였다는 것을 느낄 때 쯤이면 밤이 온다. 아침이 온다는 사실보다 밤이 온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안이 될 때가 있다.

빈틈없이 지나온 낮엔 마음을 여유롭게 둘 수도 없고, 차마 울 수도 없고 쏟아지는 잠을 채울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언제부턴가 밤을 기다리는 시간이 된다.

혼란스러운 부모 관계, 친구 관계, 열심히 해도 올라가지 않는 성적, 받은 상처는 하나씩 쌓여가 몸과 마음은 이미 고갈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런 상처는 나만 받은 것은 아니고 모두 받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바꾸지 못하는 결말이라면 긍정적이게 생각하자.

그러나 사람 마음은 변덕스럽다. 이유 없이 누군가가 좋아지기도 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한순간에 싫어지기도 한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미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되고 또 보고싶어진다.

그러다 내가 관계를 끝으로 몰고 간건 아니였을까라는 생각에 괜히 자책하여 후회하기도 한다. 하지만 끝난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당신은 분명히 상처를 받았다는 걸 이런 상처, 또는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시간이다. 이건 나만의 시간휴게소이다.

시간휴게소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남한테 쉽게 쓰던 혀끝에서 꺼끌꺼끌하게 맴도는 오글거리는 단어를 자신한테도 써보고, 어떠한 이유를 찾아가야만 나를 사랑하지 말고, 그저 아무 이유 없이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며 미움받아 불안한 밤이 아닌 사랑받는 마땅한 밤. 이유 없이도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 나는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자신이 독특하다는 걸 믿고 몰려가는 줄에 설 필요가 없고 자신의 길을 자신만의 걸음으로 걷는 것. 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치유하는 것.

그러나 휴게소에 그냥 머물러있기엔 세상은 너무 넓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너무 많다. 가보자, 왜들 상처를 품어 안고 열심히들 사는지...

언젠부턴가 나의 밤은 어둡지 않았다. 달빛이 은은하고 별빛이 반짝인다. 나는 하늘을 보니 입에 꺼끌꺼끌한 쓴맛이 맴돌고 붉은 눈시울을 삼키며 앞으로 힘차게 뛰어나갔다.

● 초중조 장원

즐거운 체험

심양시 조선족제3중학교 림서영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보니 옆집에 새 주인이 이사 온 듯했다. "이웃" 이라는 단어가 낯설 정도로 옆집 주인이 몇 번이다 바뀌였어도 나는 여태껏 이웃집 사람들 얼굴 한 번 똑똑히 보지 못했다. 그렇다보니 당연지사 옆집 이사에 별로 신경쓰이지 않았다.

"딩동!"

"누구세요?"

문을 열어보니 조금은 초라한 옷차림을 한 아줌마가 손에 자그마한 비닐주머니를 들고 서 있었다. 김치 신 냄새가 코를 콕 찔렀다.

"저는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 앞으로 우리 서로 잘 지냅시다. 이건 팔다 남은 깍두기인데 드셔보오."

엄마는 무척이나 반가운 듯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깍두기를 받으셨다. 옆집 아줌마가 돌아가시자 나는 대뜸 주방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엄마, 그거 버려."

"뭘?"

"깍두기 말이야."

"얘는, 그걸 왜 버려?"

"팔다 남은 거라잖아. 엄만 더럽지도 않아?"

"그게 뭐가 더러워, 맛있을 것만 같은데....."

그렇게 옆집 아줌마는 하루가 멀다하고 오실 때마다 시장에서 팔다 남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도라지무침 같은 걸 들고 오셨다. 그러면 엄마는 무척 반가와하며 아줌마를 맞으셨다. 하지만 나는 그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그럴수록 팔다 남은 걸 가져다줘도 저렇게 좋아하는 엄마를 리해할 수 없었다. 하물며 집에 채소 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와 함께 시장에 잠깐 들렸다.

귀에 익은 목소리가 내 귀청을 때렸다. 혹시나 해서 뒤돌아보니 옆집 아줌마였다. 아줌마는 인츰 나를 알아보셨다.

"옜다, 이거 잦다가 맛있게 먹어."

아줌마는 나를 보시자마자 반가운 미소를 짓더니 또 팔던 김치를 비닐주머니에 넣어서 쥐여주시는 것이였다.

"누구니? 너 아는 분이야?"

친구 말에 내 얼굴은 대뜸 일그러졌다.

나도 모르게 말이 좀 격하게 나가버렸다. 순간 아줌마 얼굴에는 서운함과 무안한 표정이 력력했다.

그날 저녁 나는 엄마한테 눈물을 흘린만큼 되게 혼났다. (치, 그깟 이웃이 뭔데?)

옆에서 잠자코 듣고만 계시던 아빠가 넌지시 한마디 하셨다.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한 이웃 정이였는데... 네가 그걸 모르는구나."

(이웃 정? 이것이 바로 이웃 정인가? 그 보잘 것 없는 김치가?)

우리가 사는 도시가 삭막하다고 느끼면서 한 줄기 단비를 기다리던 내 간절한 마음은 왜 정작 단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음에도 그걸 느끼지 못했을가?

어느새 우리들이 살고있는 도시의 삭막함을 닮아버린 내 마음 때문에 잃은 것은 너무 많았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는 옆집 아줌마가 가져다주는 김치가 반가웠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후더운 정이 반가우셨던 것이였다.

보잘것없은 김치에 슴배여있는 너무도 값진 정,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감동할 줄 알아야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그 길로 정이 통하는 것이다. 그렇다. 사막의 아름다움은 오아시스에 있듯이 우리들이 살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감동은 "정" 이라는 한 글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옆집 아줌마가 주신 깍두기 하나를 입에 쏙 집어넣었다. 코끝이 찡한 신맛과 달콤한 뒷맛이 내가 찾고 있던 정이 아닐지.....

● 초중조 장원

사진 속 그 추억

심양시 조선족제3중학교 최지혜

창밖에서는 늦가을의 찬비가 구질구질 내린다. 내 마음의 한 곳에서도 찬바람이 스쳐나가며 저도 모르게 몸을 옹송그린다. 손에는 아버지랑 같이 놀이터에 간 사진 어루만지며 이런 을씨년스러운 날씨면 나는 자꾸만 한국에 계시는 아빠가 그리워난다. 그때 내가 한국에 부모님 뵈러 갔을 때였다. 설 전이여서 날씨가 쌀쌀했다. 엄마는 나에게 한국문화를 체험시키고저 일주일이나 휴가를 내고 나를 데리고 여기저기 명승지를 찾아다녔다. 아빠는 돈 버시느라 계속 회사에 다니고 종종 야근도 나가셨다. 아빠는 일을 마치고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시면 추위에 손과 얼굴이 벌겋게 얼어있었다.

새벽 5시면 회사에 나가야 하는 아빠는 따뜻한 아침밥을 드실 겨를도 없었다. 엄마는 나를 챙기시느라 여념이 없었고... 그래서 아빠는 회사에 가서 잡숫지 않으면 안되였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아침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하루의 일을 시작해야 하는 울 아빠, 저녁에 코를 골면 내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까 봐 하루 밤도 수십 번이나 자세를 바꾸어가면서 주무시는 아빠.....

어느 날 저녁 8시가 넘었을 때였다. 아빠는 나에게 주려고 치킨을 사들고 들어오셨다. 고소한 냄새가 코를 진하게 자극하였다. 나는 그 누구한테 빼앗기기라도 하듯 따근따근한 치킨 하나를 게눈 감추듯 먹어버렸다. 문득 나는 아빠의 눈에 피발이 선 것을 발견하였다. 아마도 직장 일이 몹시 힘들고 고달픈 모양이였다.

나는 잠을 자려고 이불을 펴고 누웠다. 이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엄마, 아빠가 두런두런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나영이 아빠, 또 그 먼 곳까지 가서 치킨을 사오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은 힘들고 몸이 않좋다고 하면서... 날씨도 찬데....."

"그집의 치킨맛이 좀 특별하다기에... 우리 보배 딸이 맛있다고만 하면 그까짓 것 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해났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고저 이불을 머리 끝까지 푹 올려덮었다. 그날 나는 밤늦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퇴근할 때면 아빠는 나에게 주려고 꼭 손엔 항상 맛있는 것을 사들고 들어오셨다. 그것도 매일 각양각색의 다른 음식들이였다. 나는 처음엔 아빠가 퇴근해서 그냥 집으로 오시는 길에 아무데서 사서 들고 오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후에 안 일이지만 아빠는 음식을 맛있게 하는 집만 찾아가서 사오군 했던 것이였다. 그것도 집과 엄청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말이다. 하루의 고된 일로 몸이 고달프면서.....

하루하루 지쳐만 가고 여위어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빠가 마음에 걸리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사실 난 성격이 과묵한 아빠를 무척 무서워한다. 그래서인지 그동안에 내심으로 아빠에게 그리 마음이 끌리지 않았고 그만큼 아빠를 잘 따르지도 않았고 살갑게 굴지도 못했었다. 그러나 점차 커가고 철이 조금씩 들면서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음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말수는 적지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의 아빠보다 진하다는 것을 새삼스레 알게되였다.

창밖에서 흩날리는 찬비는 멈출 줄을 모른다. 오늘도 아빠는 아침 일찍 출근길에 올랐을 것이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아빠가 계시는 곳에 찬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한다.

● 고중조 장원

휴게소

심양시 조선족제1중학교 류예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책은 지식을 통하는 대문의 열쇠이고 성공을 통하는 지름길이며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금쪽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책이 내 생활 속의 "휴게소"랑 같다고 느껴진다.

책이란 휴게소에서 나는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 산더미처럼 쌓인 숙제, 늘 사람을 괴롭히는 시험성적 등은 나를 자꾸 피곤하게 만들군 한다. 그러나 책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관심하지 않아도 된다. 책 속의 주인공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마치 몸서 책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휴게소"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다. 또한 책의 아름다운 언어들을 음미하면서 마음을 말끔하게 해주는 것 같았으면 도취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휴게소에서 잠시만 있더라도 피곤함을 가셔 줄 수 있다.

책이란 휴게소에서 나는 내가 감추었던 감정들을 토로할 수 있다. 소학교 다닐 때는 처음으로 백설공주를 읽어보면서 '선'과 '악'을 느꼈으며 옆에서는 작은 쪽지글로 그 당시 나의 감정을 기록했다. 초중에 와서는 시에 미련되여 힘들 때면 시집을 사서 보군 하였다. 리백의 시들을 읽으면 나도 자기도 모르게 그 랑만적인 시풍에 감염되여 마음이 상쾌해지고 두보의 시를 읽으면서 나라의 흥망성쇠에 너무도 슬퍼서 눈가에는 늘 이슬이 맺혀 있었다. 그러다가 고중에 와서는 소설집에 흥취가 생겨 로신의 소설에서 비판성을 표달할 줄 알게 되고 모파쌍의 소설에서 풍자성을 토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휴게소에 잠시만 쉬더라도 가슴이 홀가분해진다.

책이란 휴게소에서 나는 무형의 힘을 얻는다. 어떨 때에 공부의 압력에 지탱기지 못할 때 나는 "휴게소"에 가서 쉬군 한다. 헬린켈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만물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소식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슬픔 앞에서도 락관적이고 달관적인 힘을 얻었으며 수많은 명인들의 이야기에서 부단히 전진해나가는 결심과 견지의 힘을 받아 생활 속에서 곤난의 가시덤불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동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휴게소에서 잠시 쉬더라도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생활 속에서 자기를 숨돌릴 새 없이 압박하는 것보다 인생길 옆의 "책"이라는 휴게소에서 잠시 머리도 쉬울 겸 쉬였다가 다시 출발하자!

● 고중조 장원

즐거운 체험

심양시 혼남구조선족학교 오해양

요즘 날씨는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 많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열공급까지 끊겨서 집안은 더 쌀쌀했다. 엄마는 춥다며 강아지털처럼 보들보들하고 두꺼운 이불을 꺼내셨다.

이불을 보는 순간 나는 저도 모르게 이불에 몸을 던졌다. 솜사탕처럼 폭신하고 난로처럼 따뜻했다. 나는 이불을 품에 꼭 인기도 하고 뒤집어 쓰기도 하였다. 또 이불 한 쪽 끝에서 다른 한 쪽 끝까지 돌돌 말아서 애벌레처럼 꿈틀거리며 신나게 놀았다.

"해양아—"

엄마의 기척소리에 나는 문득 엄마랑 숨바꼭질을 하고 싶어서 이불을 몸에 돌돌 만 채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다.

"아까까지 있던 애가 어디 갔지?"

엄마는 나를 찾기 시작했다.

"어머, 이렇게 큰 김밥이 어디서 나왔을가? 배고픈데 김밥이나 썰어 먹어야겠다."

엄마는 이불에 돌돌 말린 나를 손으로 써는 시늉을 했다. 너무 간지러워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엄마, 살려줘!"

하하하, 호호호! 오랜만에 엄마랑 배꼽 빠지도록 웃었다. 어느새 썰렁하던 집안은 우리의 웃음소리로 훈훈해진 것 같았다. 가끔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의 의미를 맘껏 느끼게 해주는 엄마가 있어서, 친구같은 엄마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우리는 영원히 친구같은 모녀랍니다.

엄마, 사랑해요!

● 교원조 장원

사진 속 그 추억

심양시 우홍구조선족오가황소학교
교원 리은향

또 한해 중소학생 둔촌백일장 즉석작문 콩쿨을 맺는 시간이다. 시합에 참석하는 4, 5학생들을 시합 장소에 보내놓고 지도교원 휴게소로 정한 교도처에 앉아 휴대폰에 저장한 앨범을 뒤적이다가 사진 한 장에 손가락을 멈추게 되였다. 그것은 이번 주 화요일 호교를 하면서 하도 신기하고 측은하게 느껴져 찍은 사진이다. 사진을 오래도록 쳐다보면서 그날 사진 속의 정경을 떠올리며 추억을 매만지기 시작했다.

그날은 화요일이였다. 아침 일찍부터 덕육처 문선생이 위챗으로 창을 두드렸다.

"오늘 호교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려할 여지도 없이 답장을 날렸다.

"그러죠, 길도 미끄러운데 집이 가까운 내가 하죠."

문선생은 한시름이라도 놓은 듯 엄지척 하나에 장미꽃 한 송이를 찍어보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날 오후부터 찌뿌둥하니 찡그리고 있던 하늘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어느새 기분이 좋아졌는지 눈꽃을 뿌리며 장난하다가 밤이 늦어서야 놀음을 멈췄다. 그래서 길바닥은 미끄러울 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이런 날은 교외지역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로 오고 가는데 대비하여 안전에 영향이 미칠가봐 학교에 오지 말라는 총보가 꼭두새벽에도 위챗군에 오르군 하였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 8시전에 꼭 학교에 도착해야 하기에 아침식사를 마다하고 음식거리를 간단히 준비하고 부랴부랴 학교로 달려갔다.

수발실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하루종일 있을 것을 생각하여 부지런을 피우며 손질을 좀 했다. 그리고는 클래식 음악을 틀고 수발실 안에서 나갔다 하며 창밖의 경물을 흔상하였다. 흰 눈이 두툼하게 쌓여 이불을 포갠듯한 운동장, 빙설꽃을 피우며 뻗치고 서 있는 교목나무, 흰 모자를 쓰고 해볕쏘임을 향수하고 있는 유치원놀이기구 등등은 저도 모르게 상쾌한 기분으로 전신을 마비시켰다.

문득 남쪽 창밖으로 무엇인가 갑자기 스러져 넘어져 가는 정경에 시선을 멈추었다. 다름 아닌 한 그루의 맨드라미꽃나무가 맥없이 스러졌다. 말라서 가느리한 가지에 자주빛 꽃송이를 큼직하게 만개하느라 정열을 쏟고 있는 맨드라미꽃나무가지 말이다.(갑자기 왜?)

금방 의문이 붕 뜨고 답장도 채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순간 또 한그루가 폭싹 주저앉는 것이였나. 주위를 살펴보니 낮게 자란 맨드라미 꽃송이들은 모조리 고개를 떨구었고 키가 훤칠한 맨드라미꽃나무들도 얼기설기 스러져있었다. 스러지기 전 흰 눈이 두툼하게 쌓여 마치도 하얀 면사포로 얼굴 가린 새색시마냥 아리송한 어여쁨이 매혹적이였다. 그런데 날이 푸근해지면서 흰 눈이 녹아내려 푹 절궈졌다. 나는 측은한 생각에 밖으로 나가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맨드라미 꽃나무가지 주변에 쌓인 흰 눈은 짙은 분홍색으로 어울려 마치도 선지에 아름답게 피여난 무궁화를 방불케 하였다. 맨드라미꽃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불타는 정열을 쏟으며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에 전력을 첨부했다. 참으로 신기하고 현혹한 정경이였다. 그리고 한복으로 말문이 막히게 하는 순간이였다.그 정경이 하도 마음에 와닿아 핸드폰으로 담았던 것이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순간이 눈앞에 생생하다.

지금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 글로 글짓기를 도전해보고 있다. 저도 모르게 우리 민족의 얼을 기리기 위해 투신한 민족의 큰 얼굴들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

평생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지간의 우정을 실행하면서 충효행을 선양했던 둔촌이집선생, 백성들이 배우기 가장 수월한 한글을 만들어 민족의 기반을 든든하게 다진 세종대왕, 나라의 위기로 가장 험난한 세월 속에서 허덕이던 시기 백성들의 심성을 헤아리고 힘과 용기를 부여한 윤동주와 김소월, 일제의 침략에 구국운동에 맹렬하게 투신한 안중근 영웅 등등 이루다 셀 수 없는 큰 얼굴들이 민족의 얼을 지켜나가기 위해 불타는 정열을 몰부었나, 맨드라미꽃들을 방불케한 큰 얼굴들의 훌륭한 성품을 영위해 나가는 일은 우리 몫이다. 맨드라미꽃은 매 한방울의 진하디 진한 눈물로도 백설을 아름다운 무궁화로 피우듯 우리도 우리 민족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리라 믿는다.

바로 잡습니다

〈2023년 12월호, 제394호〉

● 2쪽 우측 8행 성균관 제주

➡ **성균관 좨주로 수정**

송와잡설(松窩雜說)

「근세 유명한 경상(卿相)중에 우애로 칭찬받는 이는 오직 상공(상공은 재상의 높임말) 안현(安玹)과 이준경(李浚慶) 두 집뿐이다. 안현은 공경하는 것을 주로 하여, 그의 형 판서 안위(安瑋)를 엄부(嚴父)같이 섬겼다. 형이 말을 탔으면 자기는 말에서 내려서 가고, 형이 앉았으면 반드시 평상 앞에 나아가서 절하여, 응답(應答)하기를 매우 조심하였다.

이 정승(李浚慶)은 사랑하는 것을 중시하여, 그의 형 판서 이윤경(李潤慶)과 친구처럼 지내며 우애하였다. 앉으면 무릎을 맞대고, 누우면 베개를 가지런하게 하였다. 말하며 웃을 적에는 너나 하며 장난치기도 하였다.

두 정승의 가풍은 비록 같지 않았으나 모두 당시 진신(搢紳)들의 흠모(欽慕)하는 바 되었다. 그러나 이윤경이 죽자 상공은 제복(制服)을 입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슬퍼하였고, 안 정승의 죽음에 안위는 조문(吊問)받고 곡하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어, 상공 평생의 두텁던 우애를 저버린 듯하였다. 안위는 이것으로써 식자들의 나무람을 면치 못하였다.

(近世名卿°以友愛見稱°惟安相公玹°李相公浚慶兩家而已°安相以敬爲主°於兄判書瑋°事之如嚴父°乘則下馬°坐則必趨拜於床°唯諾惟謹°李相以愛爲主°於其兄判書潤慶°友之如親朋°坐則接膝°臥則連枕°相對言笑爾汝爲戲°兩相家風雖不同°而皆爲一時搢紳之所欽慕°然潤慶之卒°相公制服悲慟°終始如一°安相之卒°瑋弔哭無異平人°似負相公平生之厚°瑋以此未免識者之譏」)

● 송와잡설(松窩雜說)이라는 고전 문집에는 「재상 중에 우애로 칭찬받는 형제」에 관련된 내용이 실려있다. 인륜이 땅에 떨어지고 도덕이 짓밟힌 현 세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으로 보여, 지면을 할애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선조의 모습을 그려봤으면 하는 바램이다. 동고는 살아생전 형님댁과 담을 이웃하였고, 형님이 돌아가시자 행장과 비문을 지어 슬퍼하였으며 가묘를 지어 제사 지냈다.

● 안현(安玹)의 자는 중진(仲珍) 호는 설강(雪江)이다, 순흥(順興)인으로 1521년(중종 16)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전라도 관찰사, 부제학, 승정원 승지, 대사헌, 한성부 판윤, 병조판서, 이조판서, 판중추부사, 좌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형제간에 우의가 돈독해 형을 마치 아버지처럼 공경하였다. 청백리에 녹선(錄選)되고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안위(安瑋)의 자는 백진(伯珍)이다. 순흥(順興)인으로 1521년(중종 16) 별시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하고, 사헌부 집의, 충주목사, 승정원 승지, 전라도 관찰사, 형조참판, 병조판서,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 송와잡설(松窩雜說)은 대사헌, 예조 · 이조판서를역임한장정공(莊貞公)이기(1522~1600)가 저술한 책으로 기자조선 때로부터 선조 때까지의 기록으로 수령들의 탐오(貪汚)함을 비판하거나 언어 · 풍속상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을 기록하였다. 송와(松窩)는 그의 호이다. 그의 또 다른 저서인 간옹우묵에도 같은 내용으로 실려 있다.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2023년 12월 구독 및 찬조

이 름	금 액	주 소	이 름	금 액	주 소	이 름	금 액	주 소
이정봉	10,000	경남 사천	이종태	10,000	경기 고양	이용관	10,000	경기 성남
이용선	30,000	전남 벌교	이동수	10,000	경기 성남	이양래	10,000	경남 창원
이용암	10,000	안산 반월	사인공파 종중 10,000×47=470,000원			이용태	10,000	경남 창녕
이종상	10,000	서울 서대문				이용해	10,000	부산 부산진구
이동재	10,000	경남 사천	이익래	10,000	부산 연제구	이창욱	10,000	대구 달성군
이양재	10,000	전남 영광	아용달	10,000	부산 서구	이용우	10,000	대구 달서구
이정수	10,000	경기 군포	이용대	10,000	부산 서구	이용훈	10,000	경남 창원
이종현	20,000	서울 강서	이용백	10,000	경남 고령	이용문	10,000	경남 창원
이용세	20,000	서울 은평	이용발	10,000	경기 고양	이종호	10,000	대구 달성군
이길재	20,000	경기 성남	이용대	10,000	대구 중구	이용익	10,000	경남 울산
이경수	10,000	인천 남동구	이원복	10,000	대구 달서구	이한재	10,000	서울 송파
이종운	20,000	전북 완주	이용환	10,000	대구 서구	이용철	10,000	대구 달서구
이종헌	10,000	경기 양평	이윤태	10,000	경기 고양	이용관	10,000	인천 미추홀
이창선	10,000	전남 여수	이용균	10,000	대구 남구	이용욱	10,000	대구 중구
이우빈	10,000	전북 익산	이용찬	10,000	대구 남구	이용주	10,000	대구 수성
이삼용	10,000	인천 부평	이용화	10,000	대구 동구	이진재	10,000	대구 달성군
이종용	10,000	경남 밀양	이종철	10,000	경기 파주	이경재	10,000	울산 남구
이종현	10,000	부산 사하구	이상대	10,000	부산 북구	동두천 화수회 10,000×15=150,000원		
이남수	20,000	경북 경산	이용문	10,000	부산 사하구			
이수백	10,000	대구 달서구	이상래	10,000	부산 동래구	이경재	10,000	경기 동두천
이양순	10,000	충남 홍성	이용헌	10,000	경남 창녕	이성재	10,000	경기 동두천
충민공파 종중 10,000×13=130,000원			이춘우	10,000	경남 창녕	이종구	10,000	경기 동두천
			이용술	10,000	경남 창녕	이윤재	10,000	경기 동두천
이용배	10,000	경기 성남	이종우	10,000	경기 군포	이익재	10,000	경기 동두천
이종명	10,000	서울 광진	이춘지	10,000	대구 달성	이정재	10,000	경기 동두천
이정수	10,000	서울 송파	이용득	10,000	경남 창원	이종국	10,000	경기 동두천
이용만	10,000	경기 성남	이천재	10,000	경남 창원	이종식	10,000	서울 동대문
이찬수	10,000	경기 성남	이석래	10,000	대구 남구	이종욱	10,000	경기 동두천
이경재	10,000	경기 성남	이재래	10,000	대구 수성구	이종익	10,000	서울 도봉
이태수	10,000	경기 하남	이용준	10,000	대구 남구	이종찬	10,000	경기 동두천
이우재	10,000	서울 송파	이윤재	10,000	대구 수성구	이종철	10,000	서울 성동
이종삼	10,000	경기 성남	이광재	10,000	대구 수성구	이종호	10,000	서울 은평
이종근	10,000	경기 시흥	이용희	10,000	대구 달성군	이종훈	10,000	경기 동두천
이종목	10,000	경기 성남	이희재	10,000	대구 수성구	이춘재	10,000	경기 동두천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보아주십시오 .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0,000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98339-04-112
농협은행 : 301-0290-6787-91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성명과 지역을 적어 보내시거나 (예 : 홍길동 서울 또는 홍길동 종로)
(02)735-1720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4年 1月 1日
<제395호>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李 柱 榮
編輯人 : 李 容 頭
主 幹 : 李 柱 昺
發行處 : 廣州李氏大宗會

www.gwanglee.or.kr
서울特別市 鐘路區 寬勳洞 197-9番地 廣陵빌딩 501號
Tel. 02)735-1720•Fax. 02)735-1721
E-mail : gwangleedae@nate.com